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팀명

1주차	일시	5월 13일 17 : 00 상상파크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이예지(2431010)	X
		송아민(2431003)	O
		박서원(2431141)	O
		정효진(2431076)	O
		성명(학번)	O / X
	진도	도서명: 행동경제학	진도페이지: 챕터 1~2
	토론 내용	[좌측부터 정효진, 송아민, 교수님, 박서원] ※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 토론내용 작성 이예지: 책 시작 부분을 읽고 경제학이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실생활 얘기가 많아서 흥미로웠습니다. 송아민: 저는 ‘사람들이 왜 비합리적인 선택을 할까?’ 하는 부분이 제일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실험 사례들이 많아서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박서원: 처음엔 조금 낯설었는데 읽다 보니 저도 모르게 빠져들었습니다. 광고나 마케팅에도 행동경제학이 많이 쓰인다는 걸 알게 되어 신기했습니다. 정효진: 저는 ‘합리적인 인간’이라는 개념이 실제와는 많이 다르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생각보다 감정에 많이 좌우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2주차	일시	5월 13일 17 : 00 상상파크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이예지(2431010)	O
		송아민(2431003)	O
		박서원(2431141)	O
		정효진(2431076)	O
		성명(학번)	O / X
	진도	도서명: 행동경제학	진도페이지: 챕터3~4
	토론 내용		
		[좌측부터 송아민, 이예지, 박서원, 정효진]	
		※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 토론내용 작성 이예지: 이번에는 ‘전망 이론’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표현을 다르게 하면 선택이 달라진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송아민: 저는 ‘기대값’보다 감정이나 직관에 따라 결정하는 인간의 특징이 재미있었습니다. 저도 평소에 그런 선택을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박서원: 이론보다 사례 중심으로 설명이 나와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보험을 선택할 때 왜 비싼 걸 고르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정효진: 저는 ‘손실 회피’ 개념이 공감이 됐습니다. 이익보다는 손해를 피하려는 마음이 더 크다는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3주차	일시	5월 20일 17 : 00 상상파크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이예지(2431010)	O
		송아민(2431003)	O
		박서원(2431141)	O
		정효진(2431076)	X
		성명(학번)	O / X
	진도	도서명: 행동경제학	진도페이지: 챕터4~5
	토론 내용		
		[좌측부터 이예지, 교수님, 송아민, 박서원]	
		※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 토론내용 작성 이예지: 이번 장에서는 ‘넛지’라는 개념이 제일 흥미로웠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송아민: 공공정책이나 회사에서도 이 개념을 활용하면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사람을 바꾸기보다 환경을 바꾸는 게 효과적이라는 점이 와닿았습니다. 박서원: 학교나 회사 식당 메뉴판 예시가 기억에 남습니다. 순서 하나 바꿨을 뿐인데 선택이 달라진다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정효진: 넛지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부드러운 개입이라는 점이 좋았습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서로에게 이런 식의 ‘넛지’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주차	일시	5월 27일 17 : 00 상상파크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이예지(2431010)	O
		송아민(2431003)	O
		박서원(2431141)	O
		정효진(2431076)	O
		성명(학번)	O
	진도	도서명: 행동경제학	진도페이지: 챗터6
	토론 내용	[좌측부터 정효진, 이예지, 송아민, 박서원] ※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 토론내용 작성 이예지: 책을 다 읽고 나니, 평소 제 선택에도 행동경제학이 많이 작용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앞으로 소비할 때 더 신중해질 것 같습니다. 송아민: 저는 이 책 덕분에 사람을 이해하는 시야가 넓어진 것 같습니다. 감정, 환경, 습관이 선택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박서원: 행동경제학은 단순히 경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효진: 이 책을 읽고 나서 실수를 너무 자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원래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고, 그게 편안했습니다.	

활동 후기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1	이예지 (2431010)	행동경제학이라는 주제는 처음 접하는 분야라 생소했지만, 독서모임을 통해 책 내용을 조금씩 이해해 나갈 수 있었다. 혼자 읽을 때는 어렵게 느껴졌던 개념들도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혀졌다.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아 흥미로웠고, 앞으로의 선택과 행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2	송아민 (2431003)	행동경제학을 통해 인간의 선택이 항상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그 이면에 있는 심리적 요인들을 이해할 수 있어 흥미로웠다. 특히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개념이 설명되어 있어 실감 나게 다가왔다. 독서모임 활동은 책 내용을 더욱 깊이 있게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3	박서원 (2431141)	행동경제학은 기존에 알고 있던 경제학과는 다른 관점에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고 있어 신선하게 느껴졌다. 특히 감정, 습관, 환경 등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 인상 깊었다. 책을 꾸준히 읽고 생각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독서의 재미와 함께 사고의 폭도 넓어졌다.
	4	정효진 (2431076)	경제학에 심리학적 요소가 더해진 행동경제학을 통해 인간의 행동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이론보다는 실제에 가까운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다가왔고, 다양한 시각을 통해 책을 더 폭넓게 해석할 수 있었다. 독서모임을 통해 한 권의 책을 끝까지 읽고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5	성명 (학번)	